

The Key Ⅲ.

지금 내가 힘든 이유를 알려면 첫 단추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1. 첫 단추의 원리

마지막에 가야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을 알 수 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채워진 모든 단추를 다시 풀어야 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시작이 바로 되어야 과정이 분명해진다. 진행과정 가운데 혼돈이 있는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채웠을 때처럼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다. 알파로 시작되어야 오메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알파없는 오메가는 없다.

2. 하나님의 '시작'

[사도행전 13:22]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시작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고 되어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그릴 수 있는 깨끗한 캔버스라는 말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가?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의 첫 야망이 아니셨다. 야망이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셨다. 팔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마음은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서 벗어난 마음이다. 이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담아낸다. 가치 정렬이 되어있다는 말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애통'한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자신을 보며 애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돌아가는 세상을 보며 애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강도의 굴혈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다.

결국 '시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려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하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만이 혼탁한 세상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돈과 권력은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정도 행복할 수 있으나 완전한 행복은 아니다. 조건적인 행복이다. 한계가 있는 행복이다. 진짜 행복은 '영원'이 담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변하지 않는 행복을 말한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명료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기쁜소식'으로 오셨다. 복음을 들은 자는 삭개오처럼 자신이 지켜왔던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다.

3. 사울

반면,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사람이 있다.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이다. 사울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그리고자 하는 마음과 같다.

[사무엘상 8: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높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상 8:19-20]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라는 말의 반복으로 나타난다. 그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하나이다. 다른 나라처럼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전쟁을 싸울 왕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뜻의 상징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나라를 기준으로 한다.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망을 채워줄 캔버스였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사울의 패망은 분명했다. 원인은 하나이다.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욕으로 시작된 일은 욕으로 끝나게 되어있다.

이런 인생의 특징은 결정적일 때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사울을 보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전쟁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왜 그런가? 마음의 캔버스가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뜻'을 그려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순종'한다. '불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 거역했던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움직인 마음이 바로 '불순종'의 마음이며, 인간안에 죄의 문을 열어준 최초의 마음이다.

4. 바벨탑

불순종의 상징인 바벨탑을 보라. 시작이 어디인가? '땅'이다. 자신의 이름을 사방에 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출발된 마음이 곧 불순종이다. 열심히 노력한다. 최고의 재료와 기술로 탑을 쌓는다. 그 노력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멸망'이다. '허무함'이다.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완성될 수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기술발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호모 데우스'이다. 무슨 말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다. 내가 곧 신이다. 누가 뭐래도 내 뜻이 중요하다.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가족도 소용없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의, 가치도 중요하지 않다. 내 뜻을 이루면 된다.

5. 다투는 세상 - 자기 뜻만 옳다고 말하는 세상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듣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 상태가 '종교'이다. 교회가 종교가 되기 시작할 때, 생명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을 치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소모전이 있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불필요한 다툼과 분쟁속에서 나와야 한다.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을 이루어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치가 내 뜻을 이루어줄 왕을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정치가 되어 버린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일이 정치이다. 내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 더 큰 힘을 만드는 일이 인간의 정치이다.

6. 다윗 -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 (하늘을 여는 열쇠)

다윗의 시작을 보라. 사무엘상 16:1에 보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신다. 다윗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다. 위로부터 세워진 왕이다. 땅의 욕망으로 출발한 사울과는 다르다. 첫 단추 자체가 하늘의 뜻으로 세워졌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 다윗이 사울보다 행위적으로 의롭거나, 준비되거나, 더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기준은 '사람의 외모'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처음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비전'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지금 다윗의 환경을 보라.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양치기'일 뿐이다. 그러나 중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었다. (시편 27:4절의 '한 가지'를 구하는 마음이 증거이다.) 사울보다 더 좋은 환경과 스펙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윗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 자체가 하늘의 문이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확증의 음성이 들려왔다. 왜 예수님께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신다.

7.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권위 - '기름부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첫 마음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기름부음'이다.

[사무엘상 16: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은 땅에서 만들어진 욕망이었지만, 다윗은 '위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다.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 받음', '하나님에게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음'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하늘의 축복이 바로 '기름부음'이다. 기름부음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늘의 권위가 위임된 사람을 말한다. 기름부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이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이유는 하나이다. '기름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 이사야 61장과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부여된 기름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다.

[이사야 61: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사야 61:1이다. 선교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시작의 첫 단추를 채우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역자는 많은데 기름부음 받은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다. 기름부음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보이라.